



K리그1 전북, 국가대표 날개 문선민까지 품었다

지난 시즌 14골 · 대표 공격수 자리매김...“목표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디펜딩 챔피언 전북 현대가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문선민을 영입했다. 전북은 15일 “문선민을 영입해 공격라인을 보강했다”고 발표했다. 2012년 스웨덴 프로축구 외스테르순드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문선민은 스웨덴의 명문 유르고르텐을 거쳐 2017년 인천에 입단했다. 빠른 스피드를 활용해 K리그 두 시즌 동안 18득점 9도움을 올렸다. 지난 시즌에는 무고사와 함께 인천의 주축 공격수로 자리매김, 14골을 기록하기도 했다. 또 리그에서의 좋은 활약을 바탕으로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에도 참가했다. 전북 측은 “빠른 발과 좋은 공격력을 가진 문선민이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했다. 문선민은 “좋은 동료들과 함께 내가 가진 장점을 잘 살려 전북의

올 시즌 목표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뉴스

‘연봉훈풍’ 김운동 · 임기준 올시즌도 KIA 불펜의 핵심

필승맨 노릇 톡톡히 해내...매년 구위 좋아져

2019시즌도 불펜의 핵이다. 2018 KIA 타이거즈 마운드에서 활약도가 높았던 투수를 꼽자면 부동의 에이스 임현종(31)이다. 29경기에 출전해 13승을 따냈고 184.1이닝을 던졌다. 최근 5년을 합하면 매년 30경기에 170이닝 이상을 소화했다. KBO리그에서 가장 많은 이닝과 승수를 챙겼다. 자카르타-할렘방 아시안게임에서도 2경기를 던지며 금메달을 따냈다. 연봉(23억 원)값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우등 투수를 꼽자면 불펜요원 우안 김운동(26)과 좌완 임기준(28)이다. 김운동은 64경기에 출전해 7승4세이브8홀드, 평균자책점 3.70을 기록했다. 팀내 불펜 투수 가운데 가장 활약이 두드러졌다. 아직은 위기상황에서 제구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지만 매년 구위가 좋아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김운동은 2년 연속 연봉협상에

서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17시즌 우승을 달성하고 47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수직상승했다. 219% 상승률이었다. 65경기 출전 7승11세이브8홀드를 기록했다. 이어 2019시즌도 실적을 올린 만큼 첫 2억 원 도달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데뷔 이후 가장 기분좋은 겨울이다. 임기준도 2018시즌 커리어하이 기록을 만들었다. 55경기에 등판해 5승2세이브8홀드, 평균자책점 3.54를 기록했다. 데뷔 이후 처음으로 50경기를 넘겼고 50이닝도 넘겼다. 좌완 스페셜리스트로 나섰다. 하지만 긴이닝도 소화하는 등 필승맨 노릇도 톡톡히 해냈다. 좌타자들에게는 대단히 까다로운 볼을 던졌다.

임기준은 2010년에 입단했으나 단 한번도 연봉 1억 원을 넘지 못했다. 가장 높은 연봉은 2018시즌 6000만 원이었다. 2019시즌에는 연봉 1억 클럽에 가입이 유력하다. 역대 연봉이 높지만 임기준에게는 미지의 벽이었다. 그러나 10년 만에 당연한 역대 연봉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선수는 2019시즌에도 활약을 기대받고 있다. 김운동은 필승맨에서 소방수 승격 가능성도 있다. 윤석민이 선발투수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불펜투수 가운데 가장 소방수에 근접한 구위를 갖고 있다. 위기상황에서 흔들림 없이 지켜야 하는 과제가 있다. 임기준은 본격적인 필승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받고 있다. 두 불펜요원의 2019시즌도 밝아보이는 이유이다.

지역구갈매장도 정본인입니다
湖南新聞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

이강인, 87분 활약에 기립박수까지...팀은 8강 진출

감각적인 패스 시도 등 ‘여유’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에서 뛰는 이강인(발렌시아)이 컵대회에서 87분을 소화했다. 교체 아웃될 땐 팬들의 기립 박수를 받았다. 이강인은 16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의 에스타디오 데 메스타야에서 열린 스포르팅 히혼과 2018~2019 스페인 코파 델 레이(FA컵) 16강 2차전에서 선발 출장해 87분을 소화했다. 지난해 10월 이 대회를 통해 처음으로 1군 무대를 밟은 그는 지난 9일 열린 히혼과 1차전에서 풀타임

을 소화했다. 이날 경기에서도 87분이라는 긴 시간을 뛰며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발렌시아 감독의 신뢰를 재확인했다.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기회를 엿봤다. 특유의 패스 감각으로 동료들과 콤비 플레이를 만들기도 했다. 전반 23분 토니 라토에게 찰려준 패스를 라토가 크로스까지 연결했지만 골은 터지지 않았다. 후반에도 여유롭게 경기를 전개한 그는 후반 42분 데니스 체리세프와 교체되어 경기장을 빠져나왔다.



그라운드를 걸어나오는 그에게 팬들이 기립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팀은 산티 미나의 멀티골과 페란 토레스의 골을 묶어 3-0 완승을 거뒀다. 1차전에서 1-2로 패했지만 합계 스코어에서 4-2로 앞서며 8강 진출에 성공했다. 뉴스

케인 부상, 3월초까지 이탈...손흥민 차출까지 토트넘 ‘울상’

선두권 경쟁 중 공격력 약화 불가피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공격수 해리 케인이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했다. 3월 초까지 그라운드를 밟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손흥민의 아시안컵 차출까지 겹쳐 토트넘은 울상이다. 영국 스포츠뉴스는 16일(한국시간) 케인이 왼 발목 부상을 당해 3월 초까지 경기에 나설 수 없다고 전했다. 케인은 14일 웬블리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경기에서 부상을 입었다.

경기 종료 직후 그라운드에 주저앉은 케인 통증이 가뻐지지 않았다. 당초 4경기만 쉬어야 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백기가 장기화된 셈이다. 케인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14골을 터뜨려 살라(리버풀), 오바메양(아스널)과 함께 득점부문 랭킹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었다. 손흥민, 델리 알리, 에릭센 등과 토트넘 공격의 핵심을 이뤘다. 토트넘은 공격력 약화가 불가피하다. 손흥민은 맨유전을 끝으로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팀을 떠났다. 손흥민과 케인이 동시에 전력에서 이탈하면서 선두권 경쟁 중인 포체티노 감독의 머리가 복잡해졌다. 토트넘은 21일 풀럼과 리그 23라운드를 치른다.

자연의 숨겨진 구미

■ 실이 있는 지리산 둘레길

바쁜 일상, 각박한 도시에서 벗어나 지리산에서 잠시 쉬어가세요

지리산 둘레길은 지리산 주변 3개도(전북, 전남, 경남) 5개 시·군(남원, 구례, 하동, 산청, 함양)을 잇는 295km의 장거리 도보길로 전년 구례군은 지리산순천, 창세미골, 회현사, 선진강, 운주루, 피아골, 연곡사 등을 지나며 주천-산동 구간부터 목아재-기탄 구간까지 총 6개의 코스로 구성되어 있다.